

몬페레이한인교회 마을 모임 (2026년 9월 13일)

1. 환영(Welcome): 서로 인사하기

2. 경배와 찬양(Worship):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3. 말씀 리뷰(Word): 롯기 강해(6) - 섬김이 섬김을 낳는다 / 롯 2:8~13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섬겼고,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기억하셔서 보아스를 통해 다시 롯을 섬김의 자리로 인도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섬김이 또 다른 섬김을 낳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롯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밭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다른 밭에서는 롯을 보호하고 도와줄 수 없지만, 자신의 밭에서는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지켜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같습니다. 세상에서 평안과 만족을 찾으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머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보아스는 롯이 지금까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의 작은 수고와 섬김을 알아주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과 수고를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야 합니다.

롯은 자신이 섬김을 받아야 할 상황에서도 나오미를 먼저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섬김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보아스를 통해 롯이 다시 섬김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섬김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섬김을 만들어냅니다. 신앙의 도리는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섬김을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도 특권보다 사명을 생각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대접받지 못하더라도 누군가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권을 생각하는 사람은 늘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사람이 아닌데”, “왜 내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리가 아니라 섬김 자체를 기쁨으로 여깁니다. 마더 테레사는 “섬김을 받는 사람들에게는 인간적인 기쁨이 있고, 섬기는 자들에게는 신적인 기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기쁨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높아지는 기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섬김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섬김을 받으려 하기보다 먼저 섬기고, 특권보다 사명을 선택하며,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통하여 또 다른 섬김을 일으키시고, 우리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 질문에 답해봅시다.

1. 롯은 섬김을 받기보다 먼저 시어머니를 섬기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 나는 누군가에게 섬김을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섬기고 있습니까? 내가 먼저 섬겨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2. 보아스는 롯에게 자신의 말을 떠나지 말라고 하며 보호하고 배려했습니다.

-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보호와 은혜 가운데 특별히 감사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기억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3.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섬김과 수고를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것 같아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어떤 위로가 됩니까?

4. 롯의 섬김은 또 다른 섬김을 낳았고,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해 롯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베풀 수 있는 작은 섬김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어떤 섬김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5.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을 통해 또 다른 사람을 살리고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 지금 내가 섬기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기 원하시는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이번 한 주간 그 사람을 위해 어떤 섬김과 기도를 실천하겠습니까?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롯처럼 섬김 받기를 기대하기보다 먼저 낮아져 다른 사람을 섬기며, 작은 수고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사용하셔서 또 다른 섬김과 은혜를 낳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4. ‘감사’&‘기도’ 제목 나누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1 2 C F/C 3 G/B 4 Am G/B 5 C

주 님 내 가 여 기 있 사 오 니 나 를 보 내 소 - 서 나의

6 C/F G/F 7 Em Am 8 Dm 9 G

맘 나의 몸 주 께 드 리 오 - 니 주 받 으 읊 소 서 주 님

10 C F/C 11 G/B 12 Am G/B 13 C

내 가 여 기 있 사 오 니 나 를 썬 주 소 - 서 가 진

14 C/F G/F 15 Em Am 16 Dm G 17 C Bb/D C/E

것 모두 다 주 께 드 리 오 - 니 주 받 으 읊 소 서 할

18 F G/F 19 Em A/C# 20 Dm G 21 C Bb/D C/E

렐 루 — 야 할 — 렐 — 루 — 야 할

22 F G/F 23 Em Am 24 Dm G 25 C

렐 루 — 야 — — 할 — 렐 — 루 야